

전남 4명중 1명 65세 이상... 55.7% “결혼 안해도 좋다”

<15~29세>

‘2022 전남 사회지표’ 신생아 출생률 전년보다 13.4% 감소 저출산 원인 ‘양육비 부담’ 꼽아...취업·상당·알선 정책 원해

65세 이상 노인이 넷 중 한 명인데 아이 울음소리는 전년보다 무려 13.4%나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5명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만~100만원에 불과하고 전남 청년(18~39세) 10명 중 4명은 취·창업 상담 알선과 지원, 구직 활동에 필요한 상담 등을 지원해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민이 뽑은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였다.

전남도가 5일 발표한 ‘2022 전남 사회지표’ 내용이다. 사회지표는 도민 생활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관심사와 수준을 파악하고 효율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8월 26일부

터 13일 간 인구와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사회복지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22개 시·군 1만9116개 가구를 표본조사했다.

◇갈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든다=우선 고령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4만5198명, 전남 전체 인구(183만2803명)의 24.3%로 전년에 견줘 2.1% 늘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5만7481명으로 전남 인구(181만 7697명)의 25.2%로 다시 늘었다. 전남의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인구 1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17.2%, 전국의 노령화지수(144.5%)를 압도할 정도로 높다.

전남의 생산가능인구는 젊은 층(25~49세)의 ‘탈(脫) 전남’ 영향으로 118만 3000명(2021년 기준)에 머물렀다. 전년(120만3000명)보다 1.7% 줄었는데 25~49세 비율은 52만4000명으로 전년(54만명)보다 줄었다. 전남을 빠져나가는 인구(2021년 기준 22만 8106명)도 들어오는 인구(22만3619명)보다 많았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도 힘들어졌다. 2021년 기준 출생아는 8430명, 전년(9738명)보다 13.4% 급감했다. 광주시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으로 산모들의 이주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인접 시·군이 부랴 부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인구 빼앗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출생아는 전년보다 4.7% 줄어든

8027명으로 유지했다.

◇30세 미만 도민의 절반, “결혼 안해도, 자녀 없어도 좋다”=15~29세의 55.7%는 결혼을 ‘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답했고 자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답했다 49.1%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도 남편 33.46세, 아내 30.42세로 각각 전년 대비 0.16세, 0.18세 높아졌는데, ‘남편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36.26세), ‘아내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암(31.62세)이었다.

젊은층을 비롯,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답한 이유로는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22.9%), ‘양육비용 부담’(18.0%) 순이었다.

도민들이 꼽은 저출산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 부담(27.5%), 비혼증가 및 늦은 결혼(23.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5.7%) 순이었고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지원정책으로는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21.2%),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19.7%),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16.1%) 등이었다.

◇‘탈전남’ 청년들을 막으려면=도민들은 청년들을 위해 전남이 시행해야 하는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25.5%) ▲주거비 지원(17.0%) ▲청년 구직 활동 상담 지원(13.2%) 등을 꼽았다. 15~39세의 청년 생각도 비슷했다. 이들도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21.4%), 주거비 지원(19.0%), 청년 구직 활동 상담 지원(13.6%)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지원을 받는다면 일자리 등을 찾아 전남을 떠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전남지역 30~59세 실업률은 1.5%(2021년)에서 1.7%(2022년)로 상승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가뭄 대책·흑산공항 조속 추진해달라”

전남도, 환경부에 건의

전남도가 5일 광양제철소와 광양 수어담 등 가뭄으로 어려운 현장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가뭄 극복 국비 지원 및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 시급한 현안을 건의했다.

문부시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가뭄 관련 장·단기대책을 건의한데 이어 2021년 7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총괄협의회 통과 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흑산공항 관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변경계획’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부지사는 가뭄극복 단기대책으로 ▲해수담수화, 저수지 준설, 급수운반비 등 가뭄대책비 100억원 ▲완도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1541억원 중 국비 1078억원(70%) 지원을 부탁했다. 또 장기대책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이용(리사이클링) 시설 확대 추진 ▲여수 산업단지 폐수 재이용 사업(940억원) 조속 추진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가뭄대책비 100억원은 해수담수화시설 8개소 61억원, 저수지 준설 12개소 24억

원, 급수 운반비 15억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완도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1541억원은 노화·보급 31.1km 구간에 678억원, 약산·금일 49.7km 구간에 863억원을 각각 투입해 가뭄을 해소할 방침이다. 흑산공항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조속 통과에 대한 흑산공항 건설이 서해안 해양주권 행사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과 국토 서남단 흑산도권 일원의 접근성 강화, 교통기반권 보장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가뭄에 대응해 보성 강댐과 주암댐 연계사업이 운영되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환경부의 자율적 수조조정 제도에 수원공사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부지사는 “이번 환경부의 현장 방문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ESTV 스튜디오에서 ESTV 에릭윤(Eric Yoon) 대표이사과 이스포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e-스포츠 세계대회 유치 추진

미국서 ESTV와 업무협약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한미 대학대전’ 등 글로벌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 등 시 대표단은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ESTV 스튜디오에서 ESTV와 e스포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ESTV는 1억명 시청자를 보유한 e스포츠 게임 전문 채널이다.

광주시와 ESTV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

계 대회 공동 개최, 전문인력 양성교 교류, 아마추어 대회 활성화, 게임 개발자 육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1005석 규모 주 경기장 등을 갖춘 e스포츠 경기장 등 광주의 인프라와 세계 100여국에 달하는 ESTV의 방송망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7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와 연계해 한미 이스포츠 대학대전을 열고 세계 e스포츠 대회 공동 개최도 추

진한다.

에릭 윤 ESTV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수한 선수를 수없이 배출한 이스포츠 중추국인 만큼 주도권을 갖고 산업을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를 e스포츠 메카로 성장시키고 활력 넘치고 재미있는 ‘골렘 도시’로 만드는 징검다리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마을 주민 ‘인권문화 공동체’ 형성

광주시 인권마을 만들기 18일까지 접수...인권환경 개선 사업 등

광주시는 “시민의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2023년도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일상적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시민 스스로 인권운동의 주체가 되어 인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인권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주민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 마을별 소규모 인권환경 개선 사업, 마을별 인권의 제 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10인 이상 주민협의회 등 인권문화 형성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팀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18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한 모든 단체와 마을은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민주인권과(062-613-20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음 악 학 부		6
예 능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 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